

안철수 “野단일후보로 서울시장 출마…국민의힘 경선 가능”

“지금 대선 고민할 때 아냐…결자해지의 각오로 출마”

“문재인 정권 보궐선거에서 심판 안 하면 암흑의 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야권의 대선주자 후보군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건 안 대표가 처음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결자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와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 독재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며 “정권 무능을 내년 보궐선거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운동권 정치꾼들이 판 치는 암흑의 길로 영원히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안 대표는 “그동안 당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하셨지만 꼭 제 손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무능을 바로잡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하나

된 대한민국, 과거를 파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었다”며 “지금의 암울한 현실을 바꾸려면 정권교체 외엔 그 어떤 답도 없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가 그 교두보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부인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시장과 그 세력들의 괴뢰치한 범죄를 심판하는 선거,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종합령가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안 대표는 “정파와 진영에 갇힌 서울을 서울시민이 진짜 주인인 도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세계도시로 만들어야만 한다”며 “제대로 된 원칙 그리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과 문제 해결의 정신이 있다면 당면한 서울의

과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의사 안철수가 코로나19 확산, 빠른 시일 내에 확실히 잡겠다”며 “방역의 주역인 의료진과 국민들의 협조 속에서 방역체계를 완벽하고 충분한 의료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주거의 꿈을 되살리고, 세금 폭탄은 저지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며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다.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다.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며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무도하고 무법한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달릴 것”이라며 “위대한 서울시민과 함께 위기 때마다 늘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이겼던 국민들과 함께 원칙과 양식을 지키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보궐선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 대표는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다.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해야 하고, 야권 단일후보로 맞서 싸워야만 한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 경선 참여 가능성엔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다. 공정한 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좋다”며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경선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 여부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뿐 아니라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대선 출마 의지는 접은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마 결심을 한 배경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반드시 저는 선거에서 이기고 좋은 시정을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2년 후 지방선거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야권의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들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부인해 오다가 결심을 바꾼 계기에 대해선 “가장 큰 계기라면 이번 정기국회를 보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접하고, 무엇보다도 저도 의사 입장에서 이번 백신 구매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분노했다”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 도입 ‘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제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에서 고액벌금자의 이른바 ‘황제노역’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하여, 일수는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의 경중 등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을 표시하고, 일수정액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벌금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수와 일수정액을 곱한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文·與, 지지율 부담에도 野 패상…‘盧 대연정 실패’ 학습효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침체 속 ‘尹경제·공수처’

야권이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과 공수처 갈등으로 냉각된 정국에서 기대치에 비해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부담 속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밀어붙여 중도층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지지기반을 공고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지지율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야(對野) 패상 전략을 고수하자, 정치권 일각에선 ‘노무현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여권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민심 이반에도 야권의 지지율은 큰 움직임이 없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보다 앞섰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

를 보일 뿐이고, 박스권에서 큰 반동을 이뤄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7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31.2%)은 민주당(29.9%)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양당간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반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주 연속 30%대에 머물렀지만 전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38.2%로 상승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답변이 4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추 장관으로서 검찰 내부의 동요와 반발이 극심해 장관으로서 영(令)을 다시 세우는 건 불가능한 국면에서 사

표를 던져 정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전에 나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노무현 탄핵’을 정치적 짐으로 여기는 추 장관으로서 정치권에서 ‘논개 작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문 대통령을 위해 희생한 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일부에선 추 장관이 ‘아름다운 퇴장’으로 친문 세력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나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에 중도층을 비롯한 일부 지지자들이 이탈하며 민심이 등을 돌린 측면도 여권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악재였지만, 지지율이 ‘마지노선’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셈법에서 문 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한 후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통령이 무리수라는 비판 속에서도 윤석열 때리기를 강행한 것이라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